

# 조선 사신의 對明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萊州府 掖縣 西界 — 昌邑縣 新河鋪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적 고찰\*

王珂\*\* · 한종진\*\*\* · 당윤희\*\*\*\*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灰阜驛
  - 1) 灰阜驛 (灰阜, 灰埠, 灰埠驛, 灰埠里)
  - 2) 宰相里 (壯元宰相里), 壯元鄉, 宋 龍圖閣學士 蔡齊故里 (宋 蔡齊舊里)
3. 平度州 西界, 昌邑縣 東界
4. 獨埠河(杜阜河)
5. 新河店 (深河店)
6. 深河 (新河)
7. 나가는 말

## 국문초록

본고는 명청교체기 해로사행노선을 따라 등주에 상륙하여 북경으로 향했던 조선사신들의 연행기록이나 기록화를 연구 대상으로 해당 사신들이 거쳐간 사행 경유지 가

\* This work was supported by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0-INC-2250002).

\*\* 중국 웨이팡학원(濰坊學院) 한국어과(韓語系) 강사(講師), 제1저자

\*\*\* 중국 웨이팡학원(濰坊學院) 한국어과(韓語系) 부교수(副教授),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운데 山東 萊州府 掖縣 西界에서 昌邑縣 新河鋪에 이르는 구간의 노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행 기록, 지방지 등의 문헌 연구와 현지의 지역 실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萊州府 掖縣 西界에서 昌邑縣 新河鋪까지 구간의 해로사행노선의 대체적인 경유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지명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明代 당시 지방지 문헌, 조선사신의 기록에 나타난 명칭을 쫓아 掖縣 西界에서 昌邑縣 新河鋪까지 조선 사신들이 지난 경유지 지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灰阜驛 (灰阜驛, 灰阜, 灰埠, 灰埠驛, 灰埠里), 宰相里 (壯元宰相里), 壯元鄉, 宋龍圖閣學士 蔡齊故里 (宋 蔡齊 舊里) ② 平度州 西界, 昌邑 東界 (昌邑縣 東界) ③ 獨埠河 (杜阜河) ④ 新河店 (深河店) ⑤ 深河 (新河)

중국 방지 문헌, 조선사신의 기록 및 현지답사를 통한 고증으로 밝혀낸 바, 위의 명대 지명과 장소에 대응되는 현재 위치와 명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靑島市 平度市 新河鎮 灰埠村 ② 平度市 新河鎮 獨埠陳家村 ③ 平度市 淄陽河 (獨埠陳家村 구간) ④ 平度市 新河鎮 北鎮村 ⑤ 平度市 北膠萊河 (新城鎮 北鎮村 구간)

그 밖에 현지답사와 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조선 사신들이 지금의 萊州市 新城鎮 三埠村도 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조선사신, 현지 조사, 액현 서계(掖縣 西界), 신하포(新河鋪), 창읍현(昌邑縣), 래주부(萊州府)

## 1. 들어가는 말

조선과 중국의 외교 사신들은 기본적으로 육지를 경유하여 국경을 횡단하는 “陸路使行”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바다를 횡단하는 “海路使行” 역시 삼국 시대부터 중국의 여러 왕조와 교류하는 중요한 사행길이 되었다. 1621년 3월, 後金이 심양과 요양을 탈취하고 요동 반도 전역을 차지하여 육로가 차단되자, 明으로 향하는 조선 사신들은 배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하게 되었다. 조선의 ‘海路使行’, 즉 조선사신이 바다를 경유하여 명나라로 향하였던 사행은 1621년부터 1636년까지(明末 天啓, 崇禎 연간) 15년간 유지되었다.<sup>1)</sup>

1) 관련 내용은 줄지, 「朝鮮使臣海路使行路線中山東登州之地名考證與重構(一)」(『외국학연구

본고는 명청교체기 조선의 對明 海路使行 가운데 登州 路線을 대상으로 그 노선과 지명을 재구하고 인문지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청교체기 대명 해로사행은 登州 路線과 覺華島 路線의 두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각화도 노선은 대부분 육로를 거치지 않고 해상으로 北京 인근 寧遠衛까지 배를 이용하여 항해하는 노선으로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반면, 登州 노선은 유가문화의 본산인 山東 지역과 역대로 중국 역사의 상징적 사건들이 일어난 河南省을 관통하여 지나가 北京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조선 사신들이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기고 있어 더욱 많은 인문지리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621년부터 1636년까지 山東 登州-萊州 지역을 경유하여 북경으로 왕래했던 조선사신들의 연행록 문헌을 조사하였고<sup>2)</sup> 그 중에 나오는 중요한 경유지들의 지명을 추출하였다. 또한 각 경유지별로 각종 지리지, 지방지 등을 고찰하고 현장 답사를 진행하여 각 지역의 사진자료를 촬영하는 한편,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에 전해지는 사행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山東 登州府 구간을 경유하였던 조선

』43집, 2018),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登州府 黃山館驛 - 萊州府 朱橋驛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중국학논총』 63집, 2019),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萊州府 朱橋驛 - 萊州府城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2) - 二十里鋪에서 萊州府城까지」(『중국산문집간』 9집, 2019) 등 참고.

2) 이 구간의 역참로와 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연행록 문헌으로, 1621년 조선의 辯誼謝恩兼 冬至聖節使의 書狀官이었던 安璫의 『駕海朝天錄』, 1622년 登極使 吳允謙의 『秋灘東槎朝天日錄』, 1623년 奏請使의 부사 尹暄의 『白沙公航海路程日記』, 서장관 李民畝의 『癸亥朝天錄』, 1623년 7월, 冬至聖節兼謝恩使의 정사 趙識의 『燕行錄』, 1624년 謝恩兼奏請使의 정사인 李德沔의 『朝天錄(一云航海日記)』, 서장관 洪翼漢의 『花浦朝天航海錄』, 1624년 冬至使의 서장관이었던 金德承의 『天槎大觀』, 1625년 聖節使였던 全湜의 『沙西航海朝天日錄』, 1626년 謝恩兼進賀使의 정사인 金尙憲의 『朝天錄』, 1628년 冬至聖節謝恩使의 서장관이었던 申悅道の 『朝天時間見事件啓』, 그리고 1630년 鄭斗源이 기록한 『朝天記地圖』 등을 꼽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선행 연구인 줄저, 「朝鮮使臣海路使行路線中山東登州之地名考證與重構(一)」(『외국학연구』 43집, 2018) 참고.

사신들의 사행 기록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선행 연구를 이어 해당 사신들이 거쳐간 사행 경유지 가운데 山東 萊州府 掖縣 西界에서 昌邑縣 新河鋪까지의 구간을 추출하여 노정에 따라 종합 정리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萊州府 掖縣 西界부터 昌邑縣 新河鋪에 이르는 구간의 해로사행의 대체적인 경유노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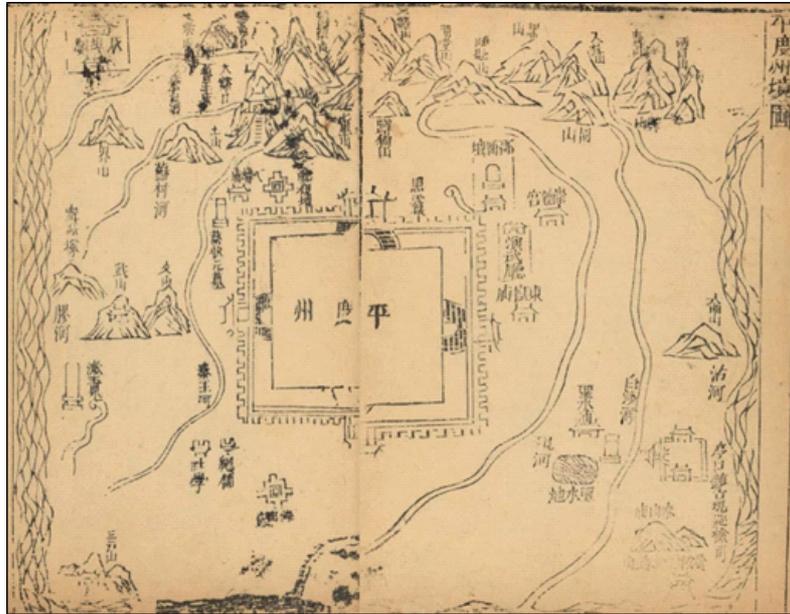


그림 1 康熙『平度州志』에 삽입되어 있는 「平度州境圖」(清 康熙 五年 刻本)

그림의 좌측 끝의 큰 강이 膠河(膠水, 지금의 膠萊河이고 중국 지방지에는 新河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선사신은 통가자로 深河라고도 표기했음)이고 좌측 상단 맨 위의 灰埠驛이 보인다. 조선사신들이 이용한 역참로는 平度州城의 북측 지역을 북동-남서 방향으로 지나서 회부역으로 거쳐 간다.

掖縣 西界에서 昌邑縣 新河까지의 구간 즉, 萊州府 平度州<sup>3)</sup> 경내에서 조선

3) 관련 方志 기록에 따르면 平度州는 『禹貢』에 수록된 靑州의 영역으로 商나라 때는 營州에, 周나라 때는 幽州에 속했고, 春秋시기에는 萊子國의 땅이었고, 戰國시기에는 齊나라에 속

사신들이 사행록에 기록한 주요 경유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灰阜駟(灰阜, 灰埠, 灰埠駟, 灰埠里), 宰相里(壯元宰相里), 壯元鄉, 宋龍圖閣學士蔡齊故里(宋蔡齊舊里), 濁河(獨埠河), 獨埠, 二濁河, 杜阜河, 平度州 西界, 昌邑 東界, 深河店, 深河, 新河店, 新河 등. 아래에서 사행록에 나온 지명에 따라 사행록의 내용 고찰과 지방지 문헌의 고증, 그리고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명대의 지명을 인문지리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의 지도 위에 재구해 보고자 한다.

## 2. 灰阜驛

### 1) 灰阜駟(灰阜, 灰埠, 灰埠駟, 灰埠里)

했다. 西漢 때 平度縣이 설치되어 東萊郡에 속했는데 서쪽에 膠水가 있었으므로 東漢 때는 膠東縣으로 개칭했으며 쯤나라때도 膠東縣으로 濟南郡에 속했다가 後齊에 다시 長廣縣으로 개칭하여 長廣郡에 속하게 되었다. 隋나라 때 萊州에 배속되었는데 唐나라 仁壽元年(601) 長廣縣을 膠水縣으로 개칭했고, 唐 武德 初에 다시 膠東縣으로 분리하여 萊州에 배속시켰고, 天寶 元年(908)에 재차 膠水縣으로 개칭되어 東萊郡에 배속됐다. 元나라 初에 山東東道 益都路 總管府에 속했다가 후에 隸盤陽路(예반양로)에 배속되었다. 明 洪武 初에 다시 膠水縣으로 회복되어 登州府에 속했고, 洪武 二十一年(1388)에 膠水縣을 平度州로 승격하여 昌邑縣, 濰縣 두 縣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萊州府에 배속되어 山東承宣佈政使司가 다스렸다. 淸 中期에 直隸州에서 散州가 되어 縣을 관할하지 않게 되었다. 民國 二年(1913)에 平度縣이 되었다가 民國 三年(1914)에 萊州府를 폐하여 平度縣을 膠東觀察使가 직접 관할했다. 民國 十五年(1926)에 膠萊道에 속하게 되었고, 1945년 가을에서 1949년 가을까지 平度는 平度, 平西, 平南, 平東 등 4개 縣으로 분할되었다가 1952년에 萊陽專署 속하게 되었다. 1956년에 昌濰專屬(창유전속)에, 1980년에 濰坊專屬(유방전속)에 속했다가 1983년 平度縣이 분리되어 靑島市에 속하게 되었고 1989년 縣을 철폐하고 縣級市로서 승격되어 靑島市에 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嘉靖『山東通志』卷3『建置沿革下』明嘉靖刻本; 嘉慶『大清一統志』卷174『萊州府』四部叢刊續編景舊鈔本; 康熙『平度州志』卷1『沿革』, 康熙五年刊行本; 道光『重修平度州志』卷2上『沿革』淸道光二十九年刊刻本; 光緒『平度志要』卷1『沿革』淸光緒十九年手抄本; 山東省平度縣地方史志編纂委員會 編纂『平度縣志』1987年版, 1-4쪽; 平度市民政局 編『平度市地名志』2017年版, 23-28쪽.

아래의 (1)과 (2)는 명 천계 2년 (1622) 登極使 吳允謙과 명 천계 5년 (1625) 冬至兼聖節使 全滉이 북경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1) 북경행: (6月) 10日 맑음. 朱橋에서 萊州府까지 60리이다. 정오에 (萊州) 南城外店에 도착했다. ……출발하여 30리를 가니 역참이 있었다. ……가마에서 내려 잠시 쉬었다. ……곧 출발하여 달이 뜰 때가 되어 灰阜驛에 도착했는데, 밤이 깊어 이미 시간이 二更이었다. ……灰阜는 萊州에서 70리이다. (六月) 初十日, 晴. 自朱橋到萊州府六十里. 午時, 到 (萊州) 南城外店, ……發行至三十里有店, ……下轎小歇, ……仍發行, 乘月到灰阜驛, 夜深二更矣. ……灰阜距萊州七十里. (吳允謙『秋灘東槎朝天日錄』)

(2) 북경행: (10月) 14日 맑음. 아침 일찍 (萊州에서) 출발하여 灰阜에 도착하여 투숙했다. 萊州로부터 70리 떨어져 있다. (十月) 十四日, 晴, 早發 (萊州) 至灰阜止宿, 去萊州七十里. (全滉『槎行錄』)

(1)과 (2)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신단은 萊州府城을 출발하여 70리를 가서 당일 저녁에 平度 灰阜驛 (灰阜) 즉, 灰埠驛에 도착했다.

명 천계 4년 (1624) 謝恩兼奏請副使 吳翻은 灰埠驛을 지날 때 「회부역-서장관이 지은 시를 차운하여 (灰埠驛, 次書狀韻)」라는 창화시를 남겼는데, 여기서 書狀이란 書狀官을 뜻하며 당시 함께 사행을 수행하고 있던 洪翼漢을 가리킨다. 正使 李德洞의 『朝天錄(一云航海日記)』과 洪翼漢의 『花浦先生朝天航海錄』<sup>4)</sup>의 기록에 따르면 명 천계 4년 (1624) 9월 16일 謝恩兼奏請使行團 사신 3명은 萊州府城 내에 있던 東萊呂先生 書院을 참관하고 나서 당일 바로 여정에 올라 萊州府 平度州 灰埠驛에 도착했다.

그러므로 오숙의 「회부역-서장관이 지은 시를 차운하여」란 시는 9월 16

4) “(九月) 十六日, 宿灰埠驛. 早朝, 尋東萊書院.” 李德洞, 『朝天錄(一云航海日記)』(『竹泉遺稿』), 曹圭益, 『朝天錄(一云航海日記)』, 『한국문학과 예술』 2008年 第2輯, 승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309쪽; “(九月) 十六日, 晴. 早朝穿 (萊州府) 城, 入東萊書院, ……是日, 行六十里. 宿灰埠驛.” 洪翼漢, 『花浦先生朝天航海錄』卷1, 韓國國立中央圖書館藏本, 25-a~26-b쪽.

일에 쓴 것이다.

「회부역-서장관 홍익한이 지은시에 차운하여」

힘겨운 사행길 귀밑머리 서리 내린 듯 회어집은 근심스럽지 않으니  
여기는 바로 공자와 하우씨의 유풍이 남아 있는 강역이기 때문이라네.  
태산은 파리 틀듯 하늘 위로 솟아 있어 천하가 작아보이고  
황하는 천하를 도도히 가로 질러 동쪽바다 끝까지 길게 흘러가네.  
齊魯의 청렴한 조정은 수많은 인재를 등용하여 선정을 베풀었고  
예로부터 물산이 풍족하여 멀리 온 천하의 상인들이 모여들었네.  
지금 이처럼 시 짓고 노래 부름은 일시적인 낭만적 감흥 때문이 아니니  
사행길 내내 가마의 장막 걷어 옛 글에 기록된 풍경을 바라보고  
수시로 길가에 멈춰 서서 아름다운 풍속에 감동했기 때문이라네.

「灰埠驛，次書狀韻」

不愁羈旅鬢渾霜，魯聖遺風夏禹疆。岱岳蟠空寰宇小，黃河橫派海門長。  
清朝冠冕登多士，終古銅鹽輳遠商。詩為采謠非漫興，櫛帷時復駐周行。

(吳翹『燕行詩』)

조선사신들은 당시 조선의 최고위 관리이자 당대 최고의 유학자, 문학가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문명의 본향인 지금의 산둥-齊魯지역에 발을 디디며 지나면서 옛 典籍 속에서만 읽어 보았던 명승고적 인근 지역을 지날 때는 일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 직접 친람하고자 애를 썼다. 生死까지 걱정해야 했던 힘겨운 사행길에서 대부분의 사신들은 이러한 체험을 큰 보상으로 느끼고 이를 기록을 남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吳翹과 동행했던 정사 李德洞도 登州에서 배를 타고 귀국할 때 “하늘과 바다 하나로 맞닿은 장관에 나그네는 도취되어 시름을 잊고, 유서 깊은 齊魯 땅을 지나며 수많은 詩篇을 남겼네”<sup>5)</sup>라는 詩句를 남겼다.

5) “天接滄溟迷客恨，地經齊魯富詩篇” 李德洞，『朝天錄(一云航海日記)』(『竹泉遺稿』)，[韓國] 曹圭益，『朝天錄(一云航海日記)』，『韓國文學與藝術』2008年 第2輯，韓國崇實大學韓國文學與藝術研究所，261-262쪽.

## 「회부역-서장관 김지수의 시를 차운하여」

닭들이 해치는 소리 들리는 누추한 객관 황혼 안개 자욱이 내려앉구나!  
 어느덧 밤 깊어 연무는 사라지고 가을 달 높이 떠 객관 문 앞 비추네.  
 객관 앞 거리 밤이 깊어 인적이 끊겼는데  
 우수에 젖은 나그네는 달이 지고 새벽닭이 울 때까지 잠들지 못한다네.

## 「灰阜驛, 次去非韻」

旅店雞棲生暝煙, 煙消月出店門前。門前夜久行人絕, 月落雞鳴猶未眠。  
 (金尙憲『朝天錄』)

위의 시는 명 천계 6년 (1626) 聖節兼陳奏使 정사 金尙憲이 金去非 곧, 서장관 金地粹 (字 去非, 號 苔川 혹은 苔湖, 天台山人) 가 지은 시의 운을 빌려 和唱한 「회부역-서장관 김지수의 시를 차운하여(灰阜驛, 次去非韻)」라는 시이다. 灰阜는 곧 灰埠이며, 앞서 설명한 바 있듯 金尙憲과 金地粹 두 사람은 같은 사행단이었으나 동행하지 않고 김상헌이 먼저 登州를 떠나 북경으로 향하고 김지수는 김상헌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 김상헌을 따랐다. 그러므로 이 시는 김상헌이 灰埠驛을 지나던 당일에 지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김지수가 쓴 시를 읽고 나서 쓴 것이다. 시의 전편은 회상의 수법을 사용하여 灰埠驛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느꼈던 나그네의 憂愁를 그려내고 있다. 닭들이 닭장에서 해를 치는 소리마저 들리는 누추한 灰埠驛에 투숙하니 황혼의 자욱한 안개가 주위를 감싼다. 어느덧 밤이 되어 저녁 안개 그치니 밝은 가을달 하늘에 떠 驛館의 문 앞을 밝게 비추고, 驛館 앞 거리는 밤이 깊어 이제 인적조차 끊겼는데 “달이 지고 새벽 첫닭이 울 때”까지 작자는 온갖 상념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한다.

## 2) 宰相里 (壯元宰相里), 壯元鄉, 宋 龍圖閣學士 蔡齊故里 (宋 蔡齊舊里)

아래의 (1)과 (2)는 명 천계 3년 (1623) 冬至聖節兼謝恩使 정사 李德泐과 서장관 洪翼漢이 각각 『朝天錄(一云航海日記)』과 『花浦朝天航海錄』에서 북경

으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 (1) 북경행: (9月) 16日 丁卯일 灰埠驛에 묵었다. 아침 일찍 (萊州城 안에 있다는) 東萊書院을 찾았다. ……壯元鄉 즉, 宋 龍圖閣學士 蔡齊故里를 지났는데 明 壯元 牌榜이 있었다. 이 날은 70리를 갔다. (九月) 十六日, 丁卯. 宿灰埠驛. 早朝, (萊州城內) 尋東萊書院, ……曆壯元鄉, 即宋龍圖閣學士—蔡齊故里, 而有明壯元牌榜. 是日, 行七十里. (李德潤 『朝天錄(一云航海日記)』)
- (2) 북경행: (9月) 16日 丁卯일 맑음. 아침 일찍 래주부성에 들어와 東萊書院에 들렀다……雲橋鋪에서 점심을 해 먹고, 狀元鄉을 지났으니 곧, 宋 龍圖閣學士 蔡齊故里이다. 이 날은 60리를 걸어 灰埠驛에 투숙했다. (九月) 十六日, 丁卯, 晴. 早朝穿城, 入東萊書院, ……中火雲橋鋪, 曆狀元鄉, 鄉即宋龍圖閣學士蔡齊故里也. 是日, 行六十里. 宿灰埠驛. (洪翼漢 『花浦朝天航海錄』)

(1)과 (2)의 기록에 따르면 萊州府城에서 平度州 灰埠驛의 사행 구간에서 이덕형과 홍익한은 “狀元鄉”을 지났다. “狀元鄉”은 宋 龍圖閣學士 蔡齊<sup>6)</sup>의

6) 『宋史』의 기록에 따르면, 蔡齊(988—1039)는 字가 子思, 北宋 膠水 (明代 萊州府 平度州, 지금의 靑島市 平度市) 사람이다. 祖籍은 원래 河南 洛陽인데 曾祖가 萊州 膠水縣 縣令을 역임한 이후로 膠水로 본적을 바꾸었다.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 外祖父 劉氏의 손에 자랐다. 이후 狀元 及第하여 황제 眞宗을 알현했는데 “그 용모가 준수하고 위엄이 있으며 거동이 단정하고 진중하였으므로(儀狀俊偉, 舉止端重)” 眞宗이 宰相 寇准(구준)에게 “인재를 얻었다(得人)”고 감탄하고서는 皇室 儀仗을 담당하던 金吾(禁軍 혹은 衛軍)에게 명령을 내려 蔡齊에게 일곱 마리의 말을 내려 호송하는 예우를 갖추게 하여 恩寵을 표시했다. 蔡齊 이후로 장원급제자에게 말과 마부를 하사하는 예우가 常例化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蔡齊는 監丞, 兗州通判(연주통판), 濰州通判(유주통판), 秘書省著作郎, 起居舍人 (『起居注』의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 곧 皇帝의 言行을 기록하는 관리), 翰林學士, 龍圖閣大學士 등의 직책을 역임했는데 彰顯太后가 국고로 景德寺를 크게 증축할 때, 記文을 지어올리지 않았던 일로 인해 모함을 받아 河南知州로 폄적되었다. 彰獻太后가 서거한 후 蔡齊는 楊太妃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하고 仁宗이 정치를 주관하기를 주장하다 파직되어 정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仁宗이 親政을 하게 된 후로 다시 龍圖閣大學士, 三司使 등의 직책에 복귀하였고 이후 벼슬이 禮部侍郎, 參知政事에 이르렀다. 宋 寶元二年 (1039) 潁州 (지금의 安徽 阜陽 一帶) 에서 병사했으니 향년 52세였고 兵部尙

고향마을이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蔡齊(988—1039)는 字가 子思, 北宋 膠水(明代 萊州府 平度州, 지금의 靑島市 平度市) 사람이다.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 外祖父 劉氏의 손에 자랐다. 이후 狀元 及第하여 眞宗 황제를 알현했는데 “그 용모가 준수하고 위엄이 있으며 거동이 단정하고 진중하였으므로(儀狀俊偉, 舉止端重)” 眞宗이 宰相 寇准(구준)에게 “인재를 얻었다(得人)”고 감탄하고서는 蔡齊에게 일곱 마리의 말을 내려 호송하는 예우를 갖추어 주었다는 미담이 전한다.

명 천계 4년(1624) 謝恩兼奏請使 부사 吳翹은 그가 지은 「新河로 가는 도중에(新河途中)」라는 시에서 狀元鄉, 즉 蔡齊故里를 언급했다. 이 시는 주로 吳翹 일행이 灰埠驛에서 新河鋪로 가는 도중에 본 길가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지만 “狀元牌榜”이 세워진 狀元鄉(蔡齊故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서장관 홍익한의 『花浦朝天航海錄』<sup>7)</sup>에 따르면 오숙의 「新河로 가는 도중에(新河途中)」라는 시는 천계 4년(1624) 9월 17일 쓰여졌다.

「新河로 가는 도중에」

(宋 蔡齊舊里에는 明 狀元牌榜이 있다.)

길가 들풀 누렇게 시들어 가고 낙엽 지는데 가을 기운 온 하늘 가득하고  
멀리 하얀 구름과 산맥은 서로 이어져 맑은 강물 위에 비추이고 있네.  
옛날 송나라 용도각대학사 채제가 살던 마을이  
바로 우리가 거쳐간 지금의 狀元鄉이라 하네.

書에 추증되었으며 諡號는 “文忠”이다. 歐陽修가 그의 行狀을 썼는데 “고위직에 있을 때 일을 처리함에 있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았으며 매사 삼가하고 공손하며 겸손하여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바가 없었기에 천하 사람들이 그를 바르고 겸손한 선비라고 칭송하였으며 조정의 동량이라 여겼다.”라고 크게 칭송하였다. 『宋史』卷286 『列傳第四十五』, 清乾隆武英殿刻本, “在大位, 臨事不回, 無所牽畏, 而恭謹謙退, 未嘗自伐, 天下推之爲正人搢紳之士, 以爲朝廷重。” 歐陽修, 『尙書戶部侍郎贈兵部尙書蔡公行狀』, 『歐陽文忠公集』卷38, 四部叢刊景元本

7) “(九月)十七日, 晴。(從灰埠驛發行) 中火新河店, 渡新河、淮河, 宿昌邑縣東館里。”  
[朝鮮] 洪翼漢, 『花浦先生朝天航海錄』卷1, 韓國國立中央圖書館藏本

역참 주막에 한 광주리 가득 담긴 먹음직한 과일이 여행객을 붙잡고  
술잔 가득 향기로운 술은 나그네 여독 말끔히 씻어줄 수 있을 듯하네.  
유유자적 아름다운 잇구 얻어낸, 가을 정취 가득한 여기 이곳에  
가을 기러기는 날아와 한로 시절 다가왔다 소식 전하네.

「新河途中」(宋蔡齊舊里, 有明狀元牌榜)

草樹浮天氣, 雲山襯水光。當時學士里, 今日狀元鄉。  
筐果堪留客, 尊醪報滌場。悠然得句處, 落雁帶清霜。

(吳翹『燕行詩』)

길가의 들풀은 시들어 말라있고 낙엽은 떨어지는데 가을 햇살이 가득찬 하늘은 서늘한 가을기운이 완연하다.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땅에서 솟아난 산맥들과 어울려 흘러가고 맑은 강물 위에 거꾸로 비치고 있다. 그런데 작자가 막 지나고 있는 이곳은 北宋 名臣 蔡齊의 고향 마을, 지금의 狀元鄉이다. 新河鋪로 가는 길가 어느 역참에는 한 광주리 가득 과일이 담겨있고 술잔에는 담긴 술은 향기로운 여독에 지친 나그네의 피로와 우수를 씻어준다. 작가는 이처럼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정겨운 분위기 때문에 절로 아름다운 잇구를 지어냈는데 때마침 날아온 기러기 떼는 지금 절기가 한로임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李德洞, 吳翹, 洪翼漢 등 조선사신이 모두 언급한 狀元牌榜이 있던 宋 蔡齊故里(蔡齊舊里)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康熙『平度州志』에 따르면 “狀元坊은 平度州城에서 관할하는 大街에 있다. 明 成化 연간에 知州 林恭이 宋 蔡齊를 위해 세웠다. 崇禎十二年 知州 杜志攀(두지반)이重修했다.”<sup>8)</sup> 곧, 康熙『平度州志』에 기록된 바 平度州城에서 관할하는 大街에 있던 明 증기에 세워진 “狀元坊”과 吳翹이 말한 “明狀元牌榜”에 대한 기록이 일치한다. 한편, 萬曆『萊州府志』에는 “灰埠驛은 平度州城에서 西北 70리에 있으니 登州와 萊州로 통하는 거리이다.”<sup>9)</sup>라고 했으니 오숙이 지은 「회부역(灰埠

8) “狀元坊, 州治大街。明成化間, 知州林恭爲宋蔡齊建。崇禎十二年, 知州杜志攀重修。” 康熙『平度州志』卷3『坊表』, 清康熙五年刻本, 15-a쪽.

9) “灰埠驛在州西北七十里, 爲登萊通衢。” 萬曆『萊州府志』卷5『驛傳』,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20-a쪽. 灰埠驛에서 平度州城까지의 거리를 보면, 嘉靖『山東通志』와 康熙『山東通

驛)」과 「신하로 가는 도중에(新河途中)」에서 말한 “明狀元牌榜”은 平度州城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平度州城에서 북쪽으로 70리 정도 떨어진 灰埠驛과 新河鋪가 있던 “등주와 래주로 통하는 거리(登萊通衢)”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된다.

명 천계 4년(1624) 冬至兼聖節使 서장관 金德承도 여기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

(昌邑縣) 경계 동쪽에 宋 壯元鄉이 있으니 膠水사람 蔡齊의 고향인데, 그는 進士試에서 장원을 했으며 용모가 후덕하고 위엄이 있으며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발라서 眞宗 황제가 그를 보고서 인재를 얻었다고 감탄했다. (昌邑縣) 界東有宋壯元鄉, 乃膠水人蔡齊也, 舉進士第一, 儀狀後偉, 舉止端肅, 眞宗見之曰: 得人。(金德承 『天槎大觀』)

위의 인용문은 金德承의 『天槎大觀』 가운데 昌邑縣 부분인데, 『宋史』에 기록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며 壯元鄉이 창읍현 경계 동쪽에 있다는 지리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昌邑縣의 동쪽은 平度州이며 두 지역의 交界는 응당 新河鋪 부근이다. 그러므로 金德承의 장원향의 위치에 대한 기록은 李德澗, 吳翹, 洪翼漢 등과 일치하니 곧, 新河鋪와 灰埠驛 사이의 어느 지점인 것이다.

또한 명 천계 3년(1623) 奏聞兼辯誣使 부사 尹暄이 쓴 『白沙公航海路程日記』에는 狀元鄉과 “明狀元牌榜”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

귀국행: (3月) 17日 맑음 아침에 昌邑縣을 지났다. ……灰埠에서 점심 밥을 해먹었는데 역관 서쪽에 패방이 있었고 “宰相里”라고 번역되어 있었으니 곧, 宋 龍圖閣大學士 蔡齊舊里이다. 沙河 (店) 에 도착하여 劉씨姓을 가진 민가에서 묵었다. (三月) 十七日, 晴。朝過昌邑縣, ……灰埠中火, 駟西有牌, 題曰: “宰相里”, 乃宋龍圖閣大學士蔡齊舊里也。到沙河 (店) 劉姓人家宿。(尹暄 『白沙公航海路程日記』)

志』에는 灰埠驛이 “平度州 서북 80리에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萊州府와 平度州의 현지 지방정부에서 纂修한 方志에서는 灰埠驛이 平度州에서 70리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아마도 실제로는 후자의 자료가 더욱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명 천계 3년 (1623년 5월 조선 출항) 奏聞兼辯誣使臣團 (정사 李慶全, 부사 尹暄, 서장관 李民歲) 과 冬至聖節兼謝恩使臣團 (1623년 9월 조선 출항, 정사 趙濺, 서장관 任賚之) 은 북경에서 합류하여 천계제로부터 인조의 책봉을 인가하는 칙서를 받음으로써 사행의 주요한 임무를 완수하였고 이 칙서를 직접 조선까지 가지고 가는 임무까지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사 尹暄은 명 천계 4년 (1624) 3월 17일 灰埠驛을 지났는데 灰埠驛의 서측에 “宰相里”라고 편액된 坊表가 세워져 있음을 보았던 것이다.

서장관 李民歲 또한 이 방표와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귀국행: (3月) 17日 이날 沙河店에 도착했다. ……새벽에 王老店을 출발하여 昌邑縣을 지났다. 卜莊店에서 점심을 해 먹고 新河를 건넜다. ……灰埠驛에 도착했는데 평도주성에서 서쪽 80리로 宋 龍圖閣太學士 蔡齊故里이며 방표에는 “壯元宰相里”라고 편액되어 있다. 저녁에 沙河店에 묵었으니 오늘은 110리를 지나왔다. (三月) 十七日, 到沙河店. ……曉發王老店, 過昌邑縣, 中火于卜莊店, 過新河, ……至灰埠驛, 州西八十里地, 乃宋龍圖閣太學士蔡齊故里也, 表曰: “壯元宰相里”。夕, 宿於沙河店, 行一百一十里。(李民歲『癸亥朝天錄』)

3월 17일 李慶全, 尹暄, 李民歲 일행은 昌邑縣의 王老店 (즉, 昌邑縣의 王耨店) 에서 출발하여 장읍현의 卜莊店에서 점심을 해 먹고 휴식을 취한 후에 昌邑縣과 平度州의 경계를 이루는 界河, 곧 新河를 건넌 다음 平度州의 灰埠驛, 곧 灰埠驛에 도착했다. 灰埠驛의 서측에 “壯元宰相里”라고 쓰인 坊表를 보았는데, 이로써 이곳이 “宋 龍圖閣太學士 蔡齊故里”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일행은 掖縣의 沙河店 즉, 沙河鋪에 도착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尹暄과 李民歲이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방에 편액된 지명에 대한 두 사람의 기록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尹暄은 “宰相里”로, 李民歲은 “壯元宰相里”로 다르게 기록했다. 현존하는 중국 내 지방지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나 앞서 살펴본 李德沔, 吳翻, 洪翼漢 등 조선사신들이 남긴 狀元鄉에 대한 기록에 비추어보면 李民歲이 “壯元宰相里”

라고 기록한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아마도 “壯元宰相里” 坊表에는 부제로 “宋 龍圖閣大學士 蔡齊舊里” 등의 글자도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李民晟은 灰埠驛을 지날 때 아래와 같이 「宰相里를 지나며(過宰相里)」라는 시 한 수를 남겼다.

「宰相里를 지나며」

(宋 龍圖閣大學士 蔡齊故里이다. 平度州 灰埠리에 있다.)

태평성세 송나라는 문장이 흥성한 시대라  
장원 체제의 이름이 황제가 꾸민 기이한 꿈에 꼭 부합하였네.  
이름은 龍虎榜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몸은 鳳凰池 같은 요직에 이르렀네.  
이곳은 유서깊은 東萊郡의 옛 땅  
여기 세워진 방표에 체제의 위대한 업적 면면히 전해지니  
그 명망 오랜 세월 동안 조금도 멀실되지 않았고  
그를 추모하는 고향땅 옛 사당은 예전과 다름이 없네.

「過宰相里」(宋龍圖閣大學士蔡齊故里也, 在平度州灰埠里)

盛宋興文運, 名符帝夢奇. 首登龍虎榜, 身到鳳凰池.  
地屬東萊郡, 坊傳宰相基. 風聲今不泯, 鄉社有遺祠.

(李民晟 『癸亥朝天錄』)

첫 연에서 태평성세 宋나라 때는 文藝의 진흥을 중시하였으니 蔡齊라는 장원급제자의 이름이 皇帝가 꿈에서 본 것과 일치함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帝夢이란 “蔡齊夢兆(체제몽조)”의 고사를 가리킨다. 萬曆 『萊州府志』에 “宋 眞宗 八年 進士試를 시행하여 인재를 구하고자 했는데, 眞宗 황제가 꿈에 궁전의 기단 높이만큼 큰 채소 하나를 보았다. 그 후 장원급제자를 발표했는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蔡齊’<sup>10)</sup>였으므로 황제가 기뻐하며 宰相인 寇

10) 蔡는 菜와 발음이 같아서 채소라는 뜻과 서로 통하고 齊는 가지런하다, 높이가 같다는 뜻으로 궁전기단의 높이와 같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蔡齊’는 곧 황제가 꿈에서 본 ‘궁전 기단과 높이가 같은 채소’를 뜻하는 것이 된다.

準에게 바로 꿈에서 본 인재를 얻었다고 말했다.”<sup>11)</sup>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조선사신이 기록한 灰阜駟, 灰阜, 灰埠, 灰埠駟, 灰埠里, 狀元鄉, 壯元宰相里, 宰相里는 모두 平度州城에서 서북으로 70리 떨어진, 등주와 래주를 잇는 관도의 중요한 교차점에 있던 灰埠驛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灰埠驛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관련 중국 지방지<sup>12)</sup>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런데 『大明會典』에는 “萊州府에 옛날부터 있던 平度州 丘西鋪와 蘇村鋪, 高密縣 密水鋪 등 역참을 전부 개혁하였다. …… 平度州에는 灰埠驛만 남게 되었다.”<sup>13)</sup> 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명 만력 연간에는 灰埠驛이 이미 존재했으며 명 隆慶 4년 (1570) 역참 개혁 때도 요충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萊州府 경내의 유일한 역참으로서 존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登州府 黃縣 경내에 유일하게 존치되었던 黃山館驛과 유사한데 黃山館驛이 명 홍무 9년 (1376) 에 세워졌으므로 灰埠驛 또한 아마 黃山館驛과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淸 道光 『重修平度州志』와 民國 『平度縣續志』<sup>14)</sup>에 따르면 明末이나 淸初에 비해 규모가 좀 작아졌을 뿐 淸末까지 灰埠驛의 역참으로서의 기능은 계속 유지되었다. 淸末에서 民國 初年를 거치면서 灰埠驛의 역참 기능은 차츰 근대적인 우체국 기능으로 대치되었다.

조선사신들이 일찍이 거쳐갔던 灰埠驛은 지금의 靑島市 平度市 新河鎮 灰埠村이다.<sup>15)</sup> 필자 일행이 옛 회부역 일대를 현장답사할 때 灰埠村 마을주민

11) “祥符八年策進士, 眞宗夢一榮與殿基齊及, 揭狀元乃蔡齊也, 上喜, 謂寇準曰, 得人矣。”萬曆『萊州府志』卷6『外傳』,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52-b쪽.

12) 萬曆 『萊州府志』、乾隆 『萊州府志』、康熙 『平度州志』、道光 『重修平度州志』、光緒 『平度志要』、光緒 『平度州鄉土志』、民國 『平度縣續志』 등 명청 시기 주요 지방지에 관련 기록이 없다.

13) “萊州府舊有平度州丘西、蘇村, 高密縣密水各驛俱革。……平度州(僅留)灰埠驛。”『大明會典』, 卷一百四十五兵部二十八 『驛傳一•水馬驛上』, 明萬曆內府刻本

14) 道光 『重修平度州志』卷14 『志七•兵防』, 淸 道光 二十九年 刊印本, 3쪽; 民國 『平度縣續志』卷5 『政治志•郵政』, 民國 二十五年 鉛印本, 20쪽.

15) 관련 方志 기록에 따르면 청대 이후 회부역의 자세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淸 康熙 5년 (1666) 에는 平度州 長樂鄉에, 淸 道光 29년 (1849) 에는 平度州 灰埠鎮에, 淸 光緒 3

張永貴(男, 70) 씨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는 灰埠村이 이전에 규모가 꽤 컸으며 총 3개의 城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했다. 현지인들은 이를 각각 東郭, 西郭, 北郭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萊州府 掖縣에서 昌邑縣으로 가는 옛 驛道는 東北-西南 방향으로 灰埠村을 지나고 있었다. 국공내전 시기 灰埠村이 군사적 요충지였기에 여기서 격렬한 전투가 여러 번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灰埠村 내 옛 건축물들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옛 坊表도 파괴되었다고 한다.

필자 일행은 張永貴씨의 안내로 옛 역도변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옛 주택 한 채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주택은 다른 주택들이 남북으로 난 길을 따라 나란히 들어선 것과는 달리 옛 관도 방향인 東北-西南 방향을 따라 다른 주택들과 어긋나게 앉아 있었다. 또한 灰埠村 마을주민 許官春(男, 61) 씨는 필자 일동을 灰埠城郭 西門의 옛터로 안내해 주었는데 이미 일반주택가로 개발되어 전혀 옛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조선사신이 목도했다는 “壯元宰相里” 坊表의 구체적인 위치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 3. 平度州 西界, 昌邑縣 東界

아래의 글은 安璫의 『駕海朝天錄』 가운데 昌邑東界를 언급한 관련 기록이다.

북경행: (7月) 7日 아침에 (萊州城에서) 출발했다……灰阜驛에서 점심을 해 먹고 深河를 건넜다. 昌邑東界라고 쓰인 방표가 보였다. (七月) 初七日。早發(萊州城)。……中火於灰阜驛, 再渡深河, 有門曰:

년(1877)에는 平度縣 長樂鄉 灰埠區에, 民國 20년(1931)에는 第四區에, 民國 24년(1935)에는 第五區에, 1945년에는 平西縣에, 1953년에는 蓼蘭縣(료란현)에, 1958년에는 灰埠公社에, 1984년에는 灰埠鄉에, 1985년에 灰埠鎮에 속했다가 지금은 平度市 新河鎮에 속한다.

昌邑東界。(安璫『駕海朝天錄』)

7월 7일 安璫 일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례로 灰阜驛(灰埠驛) → 溧河 → 昌邑東界(坊表)를 지났다. 그런데 명 천계 3년(1623) 冬至聖節兼謝恩使 趙澱은 『燕行錄(一云朝天錄)』에서 “昌邑縣 東界” 뿐만 아니라 “平度州 西界”도 기록하고 있으므로 함께 고찰하여 볼 만하다.

북경행: (10月) 14日 맑음. 아침에 (灰埠驛을) 출발하여 平度州西界를 지나고 다시 昌邑縣東界를 지났는데 도중에 暴雨를 만나 官鋪에 들러 잠시 쉬었다. 北風이 흠바람을 일으켜 황사가 온 하늘에 가득했으니 海上에서 만약 이런 바람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비가 그치자 新河를 건넜는데, 다리도 있고 배도 있었으나 가마꾼들이 배를 포기하고 다리<sup>16)</sup>로 건넜다. 그러나 다리가 심히 위태로워서 정말 조심스럽게 건넜는데 만약 가마가 뒤집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워 온몸이 오싹거렸으며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건너지 않은 것이 한스러울 지경이었다. (十月) 十四日, 晴. 早發(灰埠驛), 過平度州西界, 過昌邑縣東界, 路逢暴雨入官鋪歇. 北風卷地, 塵霧漲天, 海上若逢此風, 未知何以得生道也. 雨歇, 過新河, 有橋, 有舟, 驕夫等舍舟而橋, 橋甚危候, 堇以過去, 若至顛墜事將不測, 悚身悚身, 恨不步涉也. (趙澱『燕行錄(一云朝天錄)』)

10월 14일 趙澱 일행은 平度州 西界와 昌邑縣 東界를 차례로 지난 후, 폭풍우를 만났는데 당시 날씨가 무척이나 사나워 북풍이 크게 일고 모래바람에 섞인 운무가 하늘을 뒤덮었다. 이를 보고 趙澱은 만약 바다 위에서 그런 날씨를 만났더라면 살아남기 어려웠을거라고 탄식한다. 당시 조선 사신들은 산동 등주 땅에 발을 디디기까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폭풍우를 만나 구사일생의 위기를 맞곤 했는데 당시 래주부 땅에서 만난 사나운 날씨는 해상

16) 여기서 다리는 나룻배를 연결하고 그 위에 널판지를 얹어 만든 배다리이다. 신하에 석교가 처음 놓여진 때는 淸 康熙 九年(1670)이며, 이전에는 여름에 강물이 불어 강폭이 넓어지고 유속이 세지면 배를 이용하였고, 가을부터 강물이 줄어 강폭이 좁아지고 유속이 느려지면 배다리를 연결하여 역도의 물자를 운송하였다.

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고통의 기억을 상기시키기에 족했던 것이다. 당시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趙澱 일행은 가까운 官鋪에 들러 머물다가 날씨가 개이자 新河 위로 위험스럽게 놓인 다리를 건넜다. 明末 灰埠驛에서 新河사이의 관방 급체포는 新河鋪가 유일했으므로 趙澱이 여기서 언급한 官鋪는 바로 新河鋪이다.

1621년 7월 7일 安璫 일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례로 灰阜駟(灰埠驛) → 深河 → 昌邑東界(坊表)를 지났다. 그러나 1623년 10월 14일의 기록에 따르면 趙澱 일행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례로 거쳐간 곳은 灰埠驛 → 平度州 西界 → 昌邑縣 東界 → 新河鋪 → 新河이다. 현재의 지도와 당시의 지방지, 安璫과 趙澱의 기록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安璫의 昌邑 東界 곧, 昌邑縣 東界 坊表의 위치에 대한 기록은 오류이다. 둘째, 新河鋪는 昌邑縣 경내에 위치했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해보면 平度州 西界와 昌邑縣 東界의 표지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新河鋪는 昌邑縣 경내에 위치한 첫 번째 급체포였음을 알 수 있다.

清代 지방지와 明末 조선 사행록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明末 平度州 西界와 昌邑縣 東界의 標識가 서있던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光緒 『昌邑縣續志』에 “창읍현의 급체포는……동으로 獨埠鋪까지 60리, 東北으로 新河鋪까지 50리……獨埠鋪에서……다시 동으로 平度 三埠鋪까지 10리이다.”<sup>17)</sup>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昌邑縣 新河鋪는 昌邑縣城에서 東北 50리에, 獨埠鋪는 昌邑縣城에서 東北 60리에, 平度州 三埠鋪은 昌邑縣城에서 東北 70리에 있었던 셈이다.

명 승정 3년(1630) 陳慰奏請兼進賀使 鄭斗源은 그의 『朝天記地圖』에서 “灰埠驛은 平度州에 속하는데 灰埠驛에서 서쪽으로 昌邑縣까지 80리의 여정이다. 30리를 가면 新河驛이 있다.”<sup>18)</sup>라고 기록했으니 灰埠驛에서 昌邑縣城

17) “在城鋪……東至獨埠鋪六十里, 東北至新河鋪五十里。……獨埠鋪……東至平度之三埠鋪十里” 光緒 『昌邑縣續志』卷4 『驛遞』, 光緒三十三年刻本。

18) “灰埠驛屬平度州, 自灰埠, 西至昌邑縣, 八十里程也。行三十里, 有新河。” 鄭斗源, 『朝天記地圖』, 韓國成均館大學尊經閣藏本。

까지는 80리, 灰埠驛에서 서남으로 10리를 가면 三埠鋪이고, 다시 10리 가면 獨埠鋪, 다시 10리를 가면 新河鋪 (新河) 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과 李民宥, 金德承, 吳翻의 “獨埠”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明末 平度州 西界의 표지와 昌邑縣 東界의 표지가 있던 위치는 대략 清代 獨埠鋪가 되니 곧, 지금의 平度市 新城鎮 獨埠陳家村 부근이다.

#### 4. 杜阜河(獨埠河)

아래의 글은 명 천계 3년 (1623) 奏聞兼辯誣使 서장관 李民宥의 『癸亥朝天錄』중 북경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이다.

북경행: (6月) 29日 이날 昌邑縣에 도착했다. 아침에 灰埠를 출발하여 혼탁한 강을 건넜는데 “獨埠”라 하며 강폭은 넓지 않으나 수심은 꽤나 깊었다. 그래서 方物은 잘 싸서 뗏목에다 싣고 가마는 가마꾼들이 어깨 높이로 들어서 강을 건넜는데 물이 깊어 가마꾼들의 어깨가 잠길 정도여서 겨우 젖는 것을 면했다.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혼탁한 강을 건넜는데 앞에 건넌 강과 하나의 물줄기이나 들판을 구불구불 흐르는 바람에 여러 번 강물을 건너야 했던 것이다. (六月) 二十九日, 到昌邑縣。朝, 發灰埠, 渡濁河, 名曰: “獨埠”, 水不甚廣, 而窪深。方物包子著筏而涉, 輻夫高抬, 水幾沒肩, 僅免沾濕, 又過名不知二濁河, 蓋一水而曲折屢渡者也。(李民宥 『癸亥朝天錄』)

6월 29일 李民宥 일행은 灰埠驛에서 출발하여 물이 혼탁한 강(獨埠河)을 건넜다. 獨埠河는 비록 강폭이 넓지 않았으나 수심이 꽤나 깊어 가마꾼의 어깨까지 잠길 정도였기에 방물이 젖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신들은 뗏목을 이용하여 방물을 옮기도록 명령했다. 이렇게 가마꾼들이 뗏목을 밀어 獨埠河를 건넌 후 강물이 여전히 혼탁한 이름 모를 두 번째 강을 또 건넌 후, 조선 사신 일행은 新河店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萬曆『萊州府志』에 따르면 新河店 곧, 新河鋪는 平度州가 관할하는 急遞鋪 가운데 하나이다. 사신의 사행노선으로 보면 獨埠河는 灰埠驛과 新河店 사이에 있었으니 관련 중국 방지에서 여기에 부합하는 강을 찾아보면 平度州 “북쪽 50리에서 沙河에 합류하여 北으로 바다로 유입되는”<sup>19)</sup> 藥石河이다.

藥石河의 原名은 藥石水이다. 『太平寰宇記』에 “藥石水는 膠水縣 西北 50리 되는 곳에 있으며 明堂山에서 발원하여 石瀆河(석독하)에 합류한다”<sup>20)</sup>라고 했으며 『讀史方輿紀要』에 “明堂山은 平度州 東北 40리 되는 곳에 있으며 藥材가 산출되기에 藥石水가 여기서 발원한다. 石瀆河와 만나하여 膠水에 합류한다.”<sup>21)</sup>라고 했다. 그러므로 藥石河 곧, 藥石水는 藥材가 많이 산출되는 明堂山 (지금의 平度市 大姑頂) 에서 발원하므로 그러한 이름이 붙은 것이며 지금의 平度市 淄陽河<sup>22)</sup>가 된다.

아래의 글은 명 천계 4년 (1624) 冬至兼聖節使 서장관 金德承의 『天槎大觀』에서 昌邑縣 부분 기록이다.

(昌邑縣) 경계의 동쪽에 宋 壯元鄉이 있다. ……서쪽에는 杜阜河가 있으며 온 마을에 밥짓는 굴뚝 연기가 자욱하다. (昌邑縣) 界東有宋壯元鄉, ……西有杜阜河, 村煙極盛. (金德承 『天槎大觀』)

金德承의 기록에 따르면 杜阜河는 宋 狀元鄉, 즉, 平度州 灰埠驛의 서쪽에

19) “北五十里, 會流沙河, 北入海” 康熙 『平度州志』, 清康熙五年刻本

20) “藥石水在(膠水)縣西北五十里, 源出明堂山, 合石瀆河.” 『太平寰宇記』卷20 『河南道二十』, 清 文淵閣 四庫全書補配古逸叢書景宋本

21) “明堂山在(平度)州東北四十裡, 產藥材, 有藥石水出焉, 流合石瀆河而注於膠水.” 『讀史方輿紀要』卷36 『山東七』, 清稿本

22) 平度市民政局 編, 『平度市地名志』, 2017年版, 473쪽; 山東省平度縣地方誌編纂委員會 編纂, 『平度縣誌』, 1987年版, 263쪽; 『青島市水利志』編委會 編, 『青島市水利志』, 青島出版社 1996年版, 17쪽. 관련 방지에 따르면 藥石河는 陽河, 城子河, 之陽河라고도 하며 北膠萊河 下游의 주요한 支流로 大姑頂과 大澤山 두 곳에 남북으로 발원지를 두고 있다. 강의 총길이는 44km, 유역면적 267.6평방km이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平度州 大澤山, 長樂, 店子, 灰埠, 新河 등을 지난다.

있다. 중국어“阜 (fù) ”와 “埠 (bù) ”는 한국어 발음으로는 모두 “부”로 같고, 한자어 “杜(두)”와 “獨(독)”의 한국어 발음은 다르나 중국어 발음은 모두 “du”로 같으므로 金德承이 기록한 “杜阜河”는 바로 李民歲이 기록한 “獨埠河”이며 平度州 북쪽 50리에 있는 藥石河, 즉 지금의 平度市 淄陽河를 가리킨다. 앞서 기술했듯이 李民歲과 金德承이 언급한 “獨埠河”는 萬曆 『萊州府志』에서는 藥石河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獨埠河”라는 이름은 민간에서 통용되던 별칭이었을 것이다.



그림 2 지금의 平度市 淄陽河 (平度市 新城鎮 獨埠陳家村 구간)

『平度市地名志』<sup>23)</sup>의 기록에 따르면, 1965年 平度市에 큰 비가 내려 大澤山에 산사태가 일어났고 이로 야기된 홍수의 물길을 트기 위해 인공하천인 澤河를 준설했다고 한다. 이 토목공사로 인해 灰埠鎮 劉家村 부근을 흐르던 淄陽河가 상류와 하류 두 구간으로 단절되어 상류는 지금의 澤河 구간, 하류는 淄陽河 구간으로 나누어졌다 한다. 현재의 지명과 지리적 조건을 종합하여 보건대, 조선 사신 李民歲과 金德承 등이 건너간 獨埠河 (杜阜河) 가 바로 지

23) 平度市民政局 編, 『平度市地名志』, 2017年版, 473쪽.

금의 平度市 淄陽河 (平度市 新城鎮 獨埠陳家村 구간)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金德承이 언급한 “밥짓는 굴뚝 연기 자욱한 마을(村煙極盛)”은 곧, 清代 中期에 설치된 獨埠鋪가 있던 마을로 지금의 平度市 新河鎮 獨埠陳家村일 것이다. 乾隆 『萊州府志』<sup>24)</sup>의 기록에 따르면 昌邑縣과 掖縣 사이의 急遞鋪 중에 獨埠鋪라는 명칭의 급체포가 존재했다. 지도상의 위치와 함께 유추해보면 清代 昌邑縣에서 관할한 獨埠鋪의 위치는 金德承이 언급하고 있는 杜阜河 결의 “밥짓는 굴뚝 연기 자욱한 마을(村煙極盛)”과 일치한다. 그런데 乾隆 이전에 간행된 萬曆 『萊州府志』, 康熙 『平度州志』 등의 方志에는 “獨埠”라는 명칭의 급체포가 없다. 아마도 獨埠라는 곳은 明末에 이미 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었고 지리적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清代 中期에 이르러 정식으로 급체포를 설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지금의 平度市 新河鎮 獨埠陳家村 북쪽에 있는 “埠(낮은 구릉)”과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옛 관도

24) “昌邑縣(急遞鋪)……東北路六：黑埠、夏店、陸莊、卜莊、新河、獨埠。” 乾隆 『萊州府志』卷5 『驛遞』，清乾隆五年刻本，2-b쪽.

獨埠陳家村 村民 陳義農 (男, 51) 씨는 獨埠陳家村의 북쪽에 낮은 구릉이 있는데 현지인들은 이를 “埠”라고 부르며 “獨埠”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구릉 북측으로 萊州府에서 북경으로 향하던 옛 官道가 있었으며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대부분 獨埠陳家村에서 留宿했었다고 증언해주었다. 獨埠陳家村에서 新河까지는 약 6km의 거리이다. 필자 일행은 陳義農씨의 안내로 獨埠陳家村의 북쪽에 있는 구릉과 옛 관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옛 관도는 동서로 길이 나 있었고 폭은 3m 정도로 잘 다져진 흙길이 었다.

## 5. 新河店 (深河店)

아래의 (1), (2), (3)은 각각 安璫의 『駕海朝天錄』, 1622년 登極使 吳允謙의 『秋灘東槎朝天日錄』, 李民晟의 『癸亥朝天錄』 가운데 이 장절에서 다루는 驛道에 관련된 기록이다.

- (1) 북경행: (7月) 7日 아침에 (萊州城에서) 출발했다. ……灰阜驛에서 점심을 해 먹고 深河를 건넜다. 昌邑東界라고 쓰인 방표가 보였다.  
(七月) 初七日。早發 (萊州城)。……中火於灰阜驛，再渡深河，有門曰：昌邑東界。(安璫 『駕海朝天錄』)
- (2) 귀국행: (9月) 22日 맑음. 달이 떠 있는 새벽에 (漢亭店) 에서 출발하여 50리를 가서 昌邑城外 五里店에 도착하여 말을 쉬게 했다. 60리를 가서 深河店에 묵었다. (九月) 二十二日, 晴。乘月曉發 (漢亭店), 行五十里, 到昌邑城外五里店歇馬, 行六十里, 宿深河店。(吳允謙 『海槎朝天日錄』)
- (3) 북경행: (6月) 29日 이날 昌邑縣에 도착했다. 아침에 灰埠에서 출발했다. ……昌邑縣東界를 지나 新河店에서 점심밥을 해먹었는데 역관 남쪽으로 상점과 여관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이어져 있어 사람과 물자가 아주 많았다. 新河의 강변에 도착하여 副使와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六月)二十九日, 到昌邑縣。朝, 發灰埠, ……過昌邑縣東界, 做中火於新河店, 迤南店舍櫛比, 人物甚夥。到新河岸, 與副使同船擺渡。(李民寔『癸亥朝天錄』)

(1)에서 1621년 7월 7일 安瓚 일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례로 灰阜驛(灰埠驛) → 深河 → 昌邑東界(坊表)를 지났고 (2)에서 명 천계 3년(1623) 9월 22일 吳允謙 일행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이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차례로 漢亭店(寒亭鋪) → 昌邑城外 五里店 → 深河店을 지났다. (1)과 (2)에서 모두 “深河”를 언급하고 있는데 萬曆『萊州府志』와 康熙『平度州志』<sup>25)</sup>의 기록에 따르면 명말청초 조선사신들이 平度州 북부를 지날 당시에는 灰埠驛과 新河鋪만이 官方驛站으로 존재했었다. 萬曆『萊州府志』, 萬曆『濰縣誌』, 康熙『昌邑縣誌』<sup>26)</sup>의 기록에 따르면, 漢亭店 곧, 濰縣 寒亭鋪에서 동쪽으로 60리 되는 곳에 昌邑縣城이 있었고,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50리를 가면 新河鋪가 있었다.

곧, 거리에 차이가 있지만 吳允謙이 기록한 “深河店”은 바로 “新河店”이다. 안경 또한 오윤겸과 마찬가지로 “新河”를 발음이 같은 通假字인 “深河”로 기록하고 있다. 물론 안경이 기록한 “深河”는 吳允謙이 말한 “深河店”이 아니라 新河店 서쪽 부근에 있던 큰 강인 新河를 가리킨다. 이처럼 두 사신이 동일한 지명을 동시에 동일한 통가자로 기록한 것은 아마도 萊州 方言에 중국어 “新(xīn)”과 “深(shēn)”의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혼동한 것이거나 아니면 조선 사신들이 몇 일간의 여정을 나중에 기억에 의지하여 한꺼번에 기록한 탓인 듯하다.

(3)에서 1623년 6월 29일 李民寔 일행은 昌邑縣 東界(坊表)를 지나 新河店, 곧 新河鋪에서 쉬면서 점심을 해먹었는데 新河鋪의 남측으로 수많은 상점

25) 萬曆『萊州府志』卷5『驛傳』,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20-a쪽; 萬曆『萊州府志』卷5『驛傳』,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21-a쪽; 康熙『平度州志』卷3『驛傳』, 清 康熙 五年刻本

26) 萬曆『萊州府志』卷5『驛傳』,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21-b쪽; 萬曆『濰縣誌』卷2『鋪』, 明 萬曆 二年刻本, 5-a쪽; 康熙『昌邑縣誌』卷3『公署』, 清 康熙 十一年增刻本

과 여관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왕래하는客商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행장을 정돈한 후에 다시 출발하여 新河의 강변에 도착하여 副使 尹暄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3)의 기록은 新河鋪가 平度州와 昌邑縣의 交界에 위치하는 重鎮이자 登州와 萊州를 드나드는 門戶로서 客商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음을 알려주고 있으니 적어도 明代 末期부터 新河鋪의 상업활동이 매우 번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에 따르면 6월 29일 李民歲 일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례로 灰埠驛 → 昌邑縣東界 → 新河店 (新河鋪) 을 지났다. 앞서 살펴본 (1)과 (3)의 경유지명을 비교해보면 安墩과 李民歲의 “昌邑縣 東界”와 “新河”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즉, (1)에서 안경은 深河 끝, 新河를 지난 후 다시 昌邑縣 東界를 지났다고 했으나 (3)에서 이민성은 먼저 昌邑縣 東界를 지난 후 新河店에 도착한 후 다시 新河를 건넜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7)</sup>

民國 『續平度縣誌』에 “新河는 (平度) 城에서 서북으로 75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서쪽으로 昌邑界에서 0.5리, 남쪽으로 南崖(남애)에서 1리 떨어져 있다.”<sup>28)</sup>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南崖란 지금의 平度市 新河鎮 南鎮村의 옛이름이다. 필자 일행이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한 南鎮村 村碑의 기록에 따르면, 南

27)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당시 중국 지방지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고찰해보았다. 萬曆 『萊州府志』, 康熙 『平度州志』, 康熙 『昌邑縣誌』 등의 기록에 따르면, 明末 萬曆 三十二年 (1604) 부터 康熙 五年 (1666) 까지 新河鋪는 平度州와 昌邑縣이 함께 관할하는 急遞鋪였는데 康熙 十一年(1672)에 폐지되었다. 乾隆 『萊州府志』 중 平度州와 昌邑縣의 急遞鋪에 관한 기록을 보면, 淸 乾隆 五年 (1740) 부터 新河鋪는 平度州에서 昌邑縣의 관할로 그리고 乾隆 『重修昌邑縣誌』와 光緒 『昌邑縣續誌』 중 新河鋪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淸 乾隆 七年(1742) 新河鋪가 폐지되었다가 光緒 三十三年 (1907)에 다시 재개되었는데 모두 昌邑縣의 관할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新河鋪는 설치, 폐지, 재개 등의沿革이 상당히 복잡하여 新河鋪가 어느 관할에 속했는지에 근거하여 명말 등주와 래주를 잇던 驛道가 어디까지 平度州에 속했는지, 어디까지 昌邑縣에 속했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고증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平度州의 행정 구획이 直隸州에서 散州로 변경된 것에 기인한다.

28) “新河, 在西北, 距 (平度) 城七十五里, 西接昌邑界半里, 南至南崖一里。” 民國 『續平度縣誌』卷1 『疆域志』, 民國 二十五年鉛印本

鎮村은 新北鎮의 남측, 膠萊河 東岸에 위치하고 있으며 明 洪武 初年 劉씨 姓과 周씨 姓을 가진 일족들이 四川에서 이주해와서 마을을 세웠다. 劉씨 일족은 溝南에 거주했고 周씨 일족은 溝北에 거주했기 때문에 南崖村과 北崖村이란 명칭으로 불렸으며 南崖村과 北崖村은 지금 각각 南鎮村과 北鎮村이다. 그러므로 조선사신들이 거쳐간 新河鋪는 바로 지금의 平度市 新河鎮 北鎮村<sup>29)</sup> 일 것이다.

## 6. 深河(新河)

新河는 애초에는 膠水로 불렸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사신들은 深河라고 誤記하기도 했다. 『漢書』에 “膠水가 東으로 平度에 이르러 바다로 유입된다.”<sup>30)</sup>고 했고 “『史記』 晉世家에서 이른바 齊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東으로 膠水에 이르렀다”<sup>31)</sup>고 말한 곳이 여기다. 『水經注』에서는 “膠水는 黔陬縣(검추현) 膠山에서 발원하여 北으로 흘러 검추현 서쪽으로 흘러간다”<sup>32)</sup>라고 했다.

29) 『大明會典』의 기록에 따르면 新河鋪는 원래 昌邑縣 新河橋遞運所(신하교체운소, 다른 문헌에는 新河遞運所라 된 곳도 있음) 였는데 嘉靖 二十九年(1550) 혁파되었다. 關方志 기록에 따르면 明末 萬曆 三十二年(1604)에서 康熙 五年(1666)까지 新河橋遞運所는 新河鋪로 변경되었으니 平度州와 昌邑縣이 공통으로 관할하는 急遞鋪로 昌邑縣 仁信鄉 新河社에 속한다. 淸 康熙 十一年(1672)에 新河鋪가 폐지되었고 淸 乾隆 五年(1740)부터 新河鋪는 平度州에서 昌邑縣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淸 乾隆 七年(1742) 新河鋪가 다시 폐지되었다가 光緒 三十三年(1907) 다시 회복되어 운영되었다. 이 기간 동안 昌邑縣의 관할로 昌邑縣 居信鄉 新河社에 속했다. 民國 十七年(1928) 이전까지 昌邑縣 居信鄉 新河社에 속해 오다가 民國 十七年(1928)에 區社制가 鄉鎮制로 개혁되면서 平度縣 第五區 新河鎮에 편입되었다. 1945年 平西縣 新河鎮에, 1953年 蓼蘭縣(로란현) 第五區 新河鎮에, 1956年 平度縣 新河區 新河鎮에, 1976年 平度縣 新河人民公社에, 1984年 平度縣 新河鎮에 속했다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平度市 新河鎮에 속해오고 있다.

30) “膠水東至平度入海。”『漢書』卷28上『地理志八上』, 淸 乾隆武英殿刻本

31) “『史記』晉世家所謂伐齊東至膠” 民國『平度縣續志』卷1『山川』, 民國 二十五年鉛印本, 8-a 쪽.

黔陬縣은 바로 膠州를 가리키니, 곧 明代 萊州 平度州이다. 『元和郡縣誌』에는 “膠水是 東으로 (北海) 縣까지 85리를 흐른다”<sup>32)</sup>고 했다.

『齊乘』에는 “膠水是……膠州 서남쪽 鐵嶽山(철궐산)에서 발원한다.……다시 北으로 高密縣(고밀현) 東北지역을 지나……북으로 新河로 흘러든다. 新河는 계속 북으로 흘러 바다에 유입되는데, 그 바다로 유입되는 동북쪽 구간에서 膠水의 옛 물길이 얕았기 때문에 新河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新河는 至元初에 래주사람 姚演(요연)이 건의하여 말하기를 ‘膠西縣 東陳村 海口에서 시작하여 東南에서 西北방향으로 수 백리 운하를 준설하면 漕運을 海口까지 곧장 연결할 수 있다’고 하고서 수 년간 토목공사를 하다가 그만 두었다. 내(군현지의 官撰 편집자;필자주)가 일찍이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다가 현지인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 하천은 바다에서 밀려 들어 오는 모래로 물길이 막히어 빗물이 고이고 토사가 쌓여 끝내 운하가 개통되지 못했다’한다.”<sup>34)</sup>라는 기록이 보인다. 곧, 元代 至元 初년에 元朝에서 산둥반도의 南北을 가로 지르는 운하를 파서 조운로를 개통하고자 물길이 얕았던 膠水 하류의 옛 물길을 준설했기에 人工 運河라는 뜻에서 “新河”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元和郡縣誌』에 “膠水是 (北海) 縣에서 東으로 80리를 흘러 萊州 膠水縣의 가운데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sup>35)</sup>라고 했고, 『太平寰宇記』에 膠水是 “密州, 諸城 東卷山에서 발원하여……서쪽으로 掖縣을 거쳐 바다로 유입된다.”<sup>36)</sup> 라고 했으니 新河, 즉 膠水는 바로 지금의 北膠萊河이며, 靑島 平度市와

32) “膠水出黔陬縣膠山, 北過其縣西” 『水經注』卷26 『膠水』, 清 武英殿聚珍版叢書本

33) “膠水東去(北海) 縣八十五里” 『元和郡縣誌』卷11 『河南道』, 清 武英殿聚珍版叢書本

34) “膠水……出膠州西南鐵嶽山也。……又北徑高密縣東北……北出注新河, 由河北入於海, 其東北入海者膠水之故道差淺, 而新河爲經流。新河者, 至元初萊人姚演建言, 首起膠西縣東陳村海口, 自東南趨西北鑿陸地數百里, 欲通漕直固海口, 數年而罷余嘗乘傳過之。詢土人雲, 此河爲海沙所壅, 又水潦積淤, 終不能通。” 『齊乘』卷2 『益都水』, 清 乾隆 四十六年刻本

35) “膠水東去(北海) 縣八十五里, 與萊州膠水縣中分爲界。” 『元和郡縣誌』卷11 『河南道』, 清 武英殿聚珍版叢書本

36) “源出密州、諸城東卷山, ……西流經掖縣入海” 『太平寰宇記』卷20 『河南道二十』, 清 文淵

濰坊 昌邑市の 경계가 되는 界河이다.

『平度市地名志』<sup>37)</sup>의 기록에 따르면, 北膠萊河는 諸城 五駑山(오노산) 에서 발원하여 平度市, 高密, 昌邑市の 界河를 이루고 萊州市 土山鎮 海倉村에서 西北으로 渤海 萊州灣으로 유입된다. 총 길이가 약 77km, 유역면적이 총 1914.06평방km이며 萬家, 崔家集, 明村, 馬戈莊(마과장), 張舍, 新河鎮을 지나며 주요 支流는 澤河, 淄陽河(치양하), 雙山河, 龍王河, 現河 등이다.



그림 4 명말 조선사신이 건너야만 했던 新河(膠水, 즉 지금의 北膠萊河)의 한겨울의 풍경. 강물이 많이 줄어 억새가 무성한 모래톱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明末 平度州 新河의 명칭 변화는 곧, (漢代에서 元代 正元 연간까지) 膠水 → (元代 正元 연간에서 民國까지) 新河, 膠水, 膠河, 膠萊河<sup>38)</sup> → (지금의) 北膠萊河이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의 행정구역이 빈번

閣四庫全書補配古逸叢書景宋本

37) 平度市民政局 編, 『平度市地名志』, 2017年版, 471~472쪽.

38) 萬曆 『萊州府志』卷2 『山川』,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74-b~75-a쪽; 萬曆 『萊州府志』卷首 『圖』,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26-a쪽; 乾隆 『萊州府志』卷1 『山川』, 清 乾隆 五年刻本,

하게 변경되어 平度州 東北部와 昌邑縣 西北部の 경계는 “개의 어금니가 서로 맞물린 것처럼 뒤엎혀 복잡했다.”<sup>39)</sup> 결국 조선사신이 건너간 新河는 바로 膠水이며, 지금의 平度市 北膠萊河 新城鎮 北鎮村 구간이다.

趙濶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는 배를 타거나 다리를 지나 新河를 건널 수 있었다. 趙濶 일행은 李民崧과 尹暄과는 달리 배를 이용하지 않고 다리로 건넜다. 당시 두 사신단은 각각 음력 10월 중순, 6월말에 新河를 건넜기 때문에 강의 유수량이 달라 이처럼 다른 방식으로 강을 건넌 것이다. 곧, 조습 사행단이 新河를 건넌 시점은 늦가을로 강물이 줄어 석교가 드러나 이용할 수 있었고, 이민성 사행단은 한여름에 신하를 건넜으므로 강물이 크게 불어 석교가 물에 잠겨있어 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등주와 래주를 오가던 길을 이어주던 新河橋는 平度州城에서 西北으로 80리, 昌邑縣에서 東北으로 50리 거리에 있었다.<sup>40)</sup>

G309국도가 지나는 지금의 膠萊河 大橋 (平度市 新河鎮 北鎮村 東北측에 있음) 를 필자 일행이 현장답사할 때, 平度市 新河鎮 北鎮村의 건너편 마을인 昌邑市 卜莊鎮 新勝村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賈秀畝 (가수령 男, 78) 씨를 만나서 청대 新河 石橋의 정확한 위치에 관하여 인터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

3-a쪽; 道光 『重修平度州志』卷8 『志一·山川』, 清 道光 二十九年刻本, 8-b~9-b쪽; 民國 『平度縣續志』卷1 『山川』, 民國 二十五年鉛印本, 8-a쪽.

39) “犬牙相錯之地” 民國 『續平度縣誌』卷1 『疆域志』, 民國 二十五年鉛印本.

40) 관련 方志기록에 따르면 嘉靖 十年 (1531) 海道副使 王獻이 배를 이어 다리를 만들어 강과 바다를 이용한 운송로를 개통하여 “물자 운송에 편의를 도모했으나 이후에 海運이 폐지되자 연결된 배다리를 풀어 직접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했다.”(“以便海運, 後海運不行, 乃散舟以渡” 乾隆 『昌邑縣誌』卷2 『橋樑』, 清 乾隆 七年刊本, 64-a쪽.) 清 康熙 九年 (1670) 平度 사람 李昌明이 기부금을 건어 新河 石橋를 놓았는데 다리 아치가 110개에 이를 정도로 견고하고 안전했다 한다. 雍正 元年 (1723) 에 등주와 래주를 오가던 길을 잇던 新河 石橋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거의 허물어졌다. 嘉慶 十三年 (1808) 昌邑 사람 張廷瑞(장연서)가 의연금을 모아 다시 新河 石橋를 개축했고 光緒 三十四年 (1908) 에 沙河 사람 杜向榮이 2만 전의 돈을 기부하여 新河 大石橋를 건축했다. 옛 新河 石橋 遺址는 지금의 膠萊河 大橋에서 남쪽으로 0.5km 떨어진 곳으로 新河 石橋를 허물고 1970년대에 새로이 현대적인 다리를 건설했기에 아쉽게도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 賈秀令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의 膠萊河 大橋는 청대에 건축된 新河 大石橋 遺址에 건축된 것이 아니다.



그림 5 三埠李家村의 남쪽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옛 驛道 유적

이밖에 조선 사행록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나 사행노선을 고려해보면 등주와 래주 사이를 지나던 사신들이 반드시 지났을 급체포로 三埠鋪가 있다. 三埠鋪는 지금의 平度市 新河鎮 三埠村이다. 『平度市地名志』<sup>41)</sup>의 기록에 따르면 三埠村은 지금의 鎮政府(한국의 읍사무소에 해당)가 있는 灰埠에서 서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다. 三埠村은 마을 전체가 저지대로 동남 지역은 平原이고 西, 南, 北이 모두 구릉으로 둘러싸여있다. 명 홍무 연간에 사천 지역의 孫씨 姓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해 와 마을을 세웠으며 마을의 3면이 모두 구릉지대라서 三埠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현지답사 과정에서 필자 일동은 三埠李家村 마을주민 馮光志(男, 96) 씨의 안내로 三埠村의 서쪽에 있는 三埠李家村 남쪽에서 옛 驛道의 일부 구간 유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東北—

41) 平度市民政局 編, 『平度市地名志』, 2017年版, 148쪽.

西南 방향으로 길이 나있었고 폭은 약 3m, 잘 다져진 흙길로 현재까지도 1km 가량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 7. 나가는 말

본고는 명청교체기 해상 사행 노선을 따라 등주에 상륙하여 북경으로 향했던 조선사신들의 연행기록이나 기록화를 연구 대상으로 해당 사신들이 거처한 사행 경유지 가운데 山東 萊州府 掖縣 西界에서 昌邑縣 新河鋪에 이르는 구간의 노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행 기록, 지방지 등의 문헌 연구와 현지의 지역 실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萊州府 掖縣 西界에서 昌邑縣 新河鋪까지 구간의 해로사행노선의 대체적인 경유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지명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 고증을 종합하여 明代 당시 지방지 문헌, 조선사신의 기록에 나타난 명칭을 좇아 掖縣 西界에서 昌邑縣 新河鋪까지 조선 사신들이 지난 경유지 지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灰阜驛(灰阜驛, 灰阜, 灰埠, 灰埠驛, 灰埠里), 宰相里(壯元宰相里), 壯元鄉, 宋 龍圖閣學士 蔡齊故里(宋 蔡齊 舊里) ② 平度州 西界, 昌邑 東界(昌邑縣 東界) ③ 獨埠河(杜阜河) ④ 新河店(深河店) ⑤ 深河(新河)

그리고 중국 지방지 문헌, 조선사신의 기록 및 현지답사를 통한 고증으로 밝혀낸 바, 위의 명대 지명과 장소에 대응되는 현재 위치와 명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靑島市 平度市 新河鎮 灰埠村 ② 平度市 新河鎮 獨埠陳家村 ③ 平度市 淄陽河(獨埠陳家村 구간) ④ 平度市 新河鎮 北鎮村 ⑤ 平度市 北膠萊河(新城鎮 北鎮村 구간) 그 밖에 현지답사와 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조선 사신들이 기록에는 남기지 않았으나 지금의 萊州市 新城鎮 三埠村도 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은 이상에서 재구한 지명을 현재의 지도 위에 표기한 것이다.



그림 6 현재의 지도에 표시한掖縣 西界에서 昌邑縣 新河鋪까지 조선사신들의 경유지

## 參考文獻

- (朝鮮) 鄭斗源, 『朝天記地圖』.
- (朝鮮) 趙澱, 『燕行錄(一云朝天錄)』.
- (朝鮮) 李民成, 『癸亥朝天錄』.
- (朝鮮) 吳允謙, 『揪灘東槎朝天日錄』.
- (朝鮮) 安瓚, 『駕海朝天錄』.
- 조즙 저, 최강현 역, 『계해수로조천록』, 서울: 신성출판사, 2000
- 조규익, 『연행 길, 고통의 길, 그러나 깨달음의 길-국문 사행록의 미학』, 서울: 역락, 2004
-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서울: 사회평론, 2012
- 김지현, 「17세기 초 대명 해로 사행록 서술의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15, 2015.
- 김태준, 「중국 내 연행노정고」, 『동양학』 35권, 2004
- 신춘호, 「명칭교체기 해로사행 노정의 인문정보 일고- 『朝天記地圖』의 산동지역(등주-덕주) 인문지리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8(1), 2016
- 王珂, 한중진, 당윤희, 「朝鮮使臣海路使行路線中山東登州之地名考證與重構(一)」, 『외국학연구』 43집, 2018.
- 王珂, 한중진, 당윤희, 「朝鮮使臣海路使行路線中山東登州之地名考證與重構(二)」, 『외국학연구』 45집, 2018.
- 王珂, 한중진, 당윤희,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登州府 黃山館驛 - 萊州府 朱橋驛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 『중국학논총』 63집, 2019.
- 王珂, 한중진, 당윤희,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萊州府 朱橋驛 - 萊州府城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1) - 朱橋驛에서 平利店까지」, 『중국어문논총』 92집, 2019.
- 王珂, 한중진, 당윤희,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萊州府 朱橋驛 - 萊州府城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2) - 二十里鋪에서 萊州府城까지」, 『중

- 국산문집간』 9집, 2019.
- 이성형, 「『천사대관』과 『대명일통지』 수용양상 고찰 - 산동 육로 구간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3집, 2016.
- 정영문, 「17세기 사행록의 연구현황과 나아갈 방향-명·청 교체기의 사행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17집, 2015.
- 최소자, 「명청과 조선, 조선과 명청 관계사 연구현황과 과제 - 수교20주년에 즈음하여」, 『명청사연구』 38집, 2012.
- (明) 李賢等, 『大明一統志』, 三秦出版社, 1990
- (明) 『大明會典』, 明 萬曆 內府刻本
- (明) 嘉靖『山東通志』, 明 嘉靖刻本
- (明) 萬曆『萊州府志』,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 (清) 穆彰阿等 纂修, 『(嘉慶)大清一統志』, 四部叢刊續編景舊鈔本.
- (清) 岳浚等. 『(雍正)山東通志』, 四庫全書版.
- (清) 康熙『平度州志』, 清 康熙五年刊行本
- (清) 道光『重修平度州志』, 清 道光二十九年刻本
- (清) 光緒『平度志要』, 清 光緒十九年手抄本
- (清) 乾隆『萊州府志』, 清 乾隆 五年刻本
- (清) 許全臨 等 纂修, (康熙)『昌邑縣志』, 清 康熙 十一年刊印本,
- (民國)『平度縣續志』, 民國 二十五年鉛印本
- 山東省平度縣地方史志編纂委員會 編纂 『平度縣志』 1987年版
- 山東省萊州市史志編纂辦公室, 『萊州市志』, 齊南: 齊魯書社, 1996.
- 平度市民政局 編 『平度市地名志』 2017年版
- 韓寓群, 『山東文獻集成(第二輯)』 第二十五冊, 齊南: 山東大學出版社, 2007.
- 尹洪林, 『萊州歷史大觀』, 黃河數字出版社, 2011

## Abstract

A human geographic study on the shipping route of the Joseon(朝鮮) envoys for Ming(明) dynasty from the west boundary of Ye County(掖縣 西界) to Xinhe Station(新河鋪) of Changyi County(昌邑縣) of Laizhou(萊州) in Shandong(山東)

Wang Ke · Han, Jong Jin · Dang, Yun Hui

This study, from the diachronic perspective, based on the field surveys and some interviews, verifies the present geographic names of the places which were passed by the Joseon(朝鮮) envoys, especially around the west boundary of Ye County(掖縣 西界) to the Xinhe Station(新河鋪) of Changyi County(昌邑縣) of Laizhou(萊州府) in Ming(明) Dynasty. It will help to confirm and reconstruct the shipping routes of the Joseon(朝鮮) envoys in Laizhou(萊州府) during the alternation of Ming(明) and Qing(清) Dynas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nd field surveys, the names of the places passed by the Joseon envoys from the west boundary of Ye County(掖縣 西界) to the Xinhe Station(新河鋪) of Changyi County(昌邑縣) in Laizhou(萊州府) are reconstructed as follows: ① Huifu Station(灰阜驛, 灰阜驛, 灰阜, 灰埠, 灰埠驛, 灰埠里), the Prime Minister Village(宰相里, 壯元宰相里, 壯元鄉, 宋 龍圖閣學士 蔡齊故里, 宋 蔡齊 舊里) ② the west boundary of Pingdu(平度州 西界), the east boundary of Changyi County(昌邑 東界, 昌邑縣 東界) ③ Dufu River(獨埠河, 杜阜河) ④ Xinhe Station(新河店, 深河店) ⑤ Shen River(深河, 新河)

**Key words** : Joseon(朝鮮) envoys, field survey, the west boundary of Ye County(掖縣 西界), the Xinhe Station(新河鋪) of Changyi County(昌邑縣), the prefecture of Laizhou(萊州府)

투 고 일 : 2021. 1. 10. / 심 사 일 : 2021. 1. 15. ~ 2021. 2. 15. / 게재확정일 : 2021. 2. 20.

